



금융위원회

보도자료



보도

2019.12.5.(목) 10:00부터

배포

19.12.5.(목)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성기 (02-2100-2990)	담 당 자	권민영 사무관(02-2100-2991) 최미영 사무관(02-2100-2994)
	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김명규(044-215-2750)		조찬우 사무관(044-215-2753)
	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하종목(02-2100-4284)		한상정 사무관(044-205-3949)
	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정아름(044-201-1751)		남현중 사무관(044-201-1760)
	해수부 수산정책과장 권준영(044-200-5420)		박천일 사무관(044-200-5429)
	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이준산(042-481-4130)		임창욱 사무관(042-481-4037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이희준(02-3145-8070)		정대헌 팀장(02-3145-8072)
	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 엄주동(02-3145-8160)		최길성 팀장(02-3145-8168)
	신협중앙회 이사 장병용(042-720-1005) 박영범(042-720-1006)		오윤록 부장(042-720-1360)
	농협중앙회 본부장 안호근(02-2080-5056)		김길수 부장(02-2080-3110)
	수협중앙회 상무 강신숙(02-2240-2040)		민봉식 부장(02-2240-2200)
	산림조합중앙회 상무 조태원(02-3434-7123)		오근영 부장(02-3434-7230)
	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황국현(02-2145-9006) 오승원(02-2145-9800)		심동보 본부장(02-2145-9480)

제 목 : 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

- 지역경기 및 부동산 경기 둔화 가운데 그간 상호금융권의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정책의 효과와 리스크 요인 점검
-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

1 회의 개요

- 금융위원회(주재: 윤창호 금융산업국장)는 '19.12.5(목)에 「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」를 개최하여,
 - 상호금융권(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,
 - 상호금융업권내 각 부문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(일시 / 장소) '19.12.5(목) 10:00 ~ 11:30 / 금융위원회 제2중회의실
- (참석) 16명
 -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(주재), 중소기업과장
 - 기재부 자금시장과,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,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, 해수부 수산정책과, 산림청 산림정책과
 -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, 상호금융검사국장
 - 신협·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 담당 임원

2 회의 주요내용 : 아래와 같습니다.

가. 상호금융업권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동향

- (가계대출) '19.9월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302.5조원이며 가계 부채 및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안정화 추세*

* 증감액(조원) : ('15년) 16.6 → ('16년) 34.4 → ('17년) 18.0 → ('18년) 2.5 → ('19.1~9월) **△7.3 (△24%)**

- 연체율은 1.71%로 '18년(1.20%) 대비 상승하였으며, 부실채권 정리 등 적극적 관리 필요

* 연체율('18말→'19.9월 % %p) : (은행) 0.26→0.29(+0.03), (상호) **1.20→1.71(+0.51)**, (저축) 4.65→3.93(△0.72)

- (개인사업자대출) '19.9월말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81.1조원으로 '18년말(67.4조원) 대비 13.7조원 증가하였으나, 증가세는 둔화 추세

* 상호금융 증가율(%) : ('16년) 48.1 → ('17년) 61.7 → ('18년) 38.5 → ('19.1~9월) **20.3**
 잔액(조원) : 30.1 → 48.7 → 67.4 → **81.1**

- 연체율은 2.33%이며,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은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'18년말 대비 다소 개선*

* [부동산·임대업 대출 비중] '18년말 42.4% → '19.9월말 41.9% (△0.5%p)

- (관리방향)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*

* (예)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,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, 과도한 배당 자제, 자본확충 유도 등

- 아울러, 취약·연체 차주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

나. 상호금융업권 집단대출 취급 현황

- (현황) '19.10월말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잔액은 9.8조원으로 '18년말(17.4조원) 대비 7.6조원 감소(△43.8%)
 -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 재개*(19.5월)에도 불구하고,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의 꾸준한 상환으로 전체 집단대출 잔액은 크게 감소**
 - * 집단대출 급증에 따라 '17.4월 전체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 후 농수신협은 '17.10월부터, 새마을금고는 '19.5월부터 취급 재개(산림조합은 집단대출 미취급)
 - ** 잔액 추이(조원):('16말) 14.1 → ('17말) 23.5 → ('18말) 17.4 → ('19.10말) 9.8
 - 또한, 새마을금고(5.5조원, 전체 56%) 및 신협(2.4조원, 24%)은 강화된 '집단대출 관리기준'(19.5.13) 적용으로 리스크가 감소
 - * 집단대출/총대출 비중 30% 이상 조합·금고('19.10월말) : [총계] 35개 (전체 1%) [신협] 3개 (신협조합 전체의 0.3%) [새마을금고] 32개 (새마을금고 전체의 2.5%)
 - 연체율은 '19.10월말 1.15%로 '18년말(0.34%) 대비 상승(+0.81%p) 하였으나, 대출잔액 감소(△43.8%)에 따른 것이며, 가계대출 연체율(1.7%)보다 낮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
- (관리방향) 중도금대출 비중(66.1%)이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시 시공사 부도 발생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,
 - 중앙회는 조합(금고) 등의 집단대출 약정·집행·상환현황 등을 철저히 지도·감독하고, 금융당국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

다.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 관련

- (규제차익 해소)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 관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, 근거법률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용되는 규제에 차이가 있음
- 상호금융업권내 건전성,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(Governance) 관련 규제*를 전면 비교·검토 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

* (예) [건전성 규제] 적기시정조치, 타법인 출자한도 등
[영업행위 규제] 예대율 등 [지배구조 관련]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